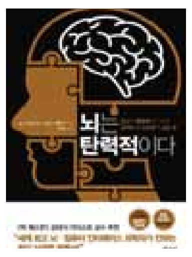
중세 화형서 사이버 폭력까지…마녀사냥의 역사



뇌는 탄력적이다

닐스 비르바우머 외 지음

임상실험 통해 본 뇌의 세계

세계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닐스 비르바우머가 펴낸 '뇌는 탄력적이다'는 이례적인 책이다. 실제 임상실험을 통해 얻은 흥미롭고 공신력 있는 지식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뇌과학 책은 기억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이나 뇌와 인간의 존재를 다루는 인문학 저서가 주류였다. 이에 반해 '뇌는 탄력적이다'는 천재들과 일반인 등의 뇌에서 얻은 혈류량, 뇌파, 뇌 온도 데이터를 토대로 인지 능력과 자가 치유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흥미로운 임상 실험이 첨가돼 있다. "당신이 똑똑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뇌과학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뇌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뇌의 경이로운 세계를 조명한다.

〈메디치·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내가 살아갈 사람

김중일 지음

모순투성이 세상 진실 찾기

환상적 이미지와 감각적 시어로 주목을 받아온 김중일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내가 살아갈 사람'을 발간했다. 김구용시문학상(2013) 수상작 '아무튼 씨 미안해요' 이후 3년 만에 펴낸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농담 같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세상"을 향해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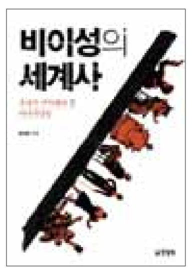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은 독특한 감각과 몽환의 이미지로 독특한 시세계를 펼쳐낸다. 언어를 부리는 예사롭지 않은 솜씨는 단순한 말장난이나 언어유희를 뛰어넘는다. 얼룩진 모순투성이의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치열한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 시집을 사랑이라는 상실과 불면이라는 농담으로 채우고자 했다"며 "잊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창작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의미를 밝힌다.

〈창비·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비이성의 세계사

정찬일 지음



소크라테스와 잔다르크는 집단적 비이성적 행위인 '마녀사냥'으로 죽음에 이른 인물들이다. 독배를 드는 소크라테스(왼쪽)와 백년전쟁에 참가한 잔다르크. 〈양철북 제공〉

중세에 '마녀사냥'이라는 악습이 있었다. 마녀행위는 가장 무거운 범죄였고 극형을 피할 수 없었다. 마녀사냥은 15세기 유럽의 종교재판이 시초였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악마의 마법이 있었다고 믿었다.

마녀사냥의 피해자로 영국과의 백년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 영웅 잔다르크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16세 소녀 잔다르크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참전해 곳곳에서 승리를 했다. 잔다르크는 성녀로 추앙받았고 영국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당시 프랑스 샤를 7세와 귀족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잔다르크를 질시했다.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한 잔다르크는 이후의 전쟁에서 영국군 포로로 잡힌다. 영국은 잔다르크 신병처리 문제로 고민을 한다. 종교재판 법정에 그녀를 세웠고, 악마의 힘을 빌려 전투에서 이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잔다르크는 죽음 직전까지 마녀가 아니라고 절규했지만, 화염은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잔다르크는 사후 150년 만에 '성녀'로 추앙받는다. 마녀에서 성녀로 명예회복이 되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다행히 그녀는 마녀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당시 이런 마녀사냥이 횡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단 중세에만 마녀사냥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같은 '악행'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장막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은 중세의 마녀사냥 못지않다.

기자 출신으로 노동운동사에 관한 책을 다수 썼던 정찬일 씨가 '비이성의 세계사'를 펴냈다. 저자는 다수가 근거 없이 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비이성적 현상을 다룬다. 점잖게 말해서 비이성의 세계사이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마녀사냥의 역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책에서 다루는 마녀사냥은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할 대상을 찾는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전복하려 할 때 관련 없는 것을 '마녀'로 규정, 희생양을 삼았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에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다.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는 소신을 견지했지만, 스스로 '마녀'가 됨으로써 시민들의 우매함에 경종을 울린다.

로마 네로 황제는 자신이 대화재의 방화범이라는 소문을 피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 마녀로 규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잔인한 처형과 박해가 이루어졌음은 불문가지다.

우리나라에도 '마녀사냥'의 역사가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을 유린한 청나라는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여자들이 어떤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몇 년 후 고향에 돌아온 그들에게는 이전보다 더한 수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몸을 더럽혔다는 냉대와 시선은 남존여비 이데올로기가 낳은 명백한 '마녀사냥'이었다.

일본 최악의 관동대지진 때는 수많은 조선인이 무차별 학살당했다. 대지진이 야기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민주와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도 마녀사냥의 역사가 있었다. "미국 국무부에 있는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이 이 손에 있습니다"라는 1950년 매카시의 연설로 미국 전역이 광풍에 휩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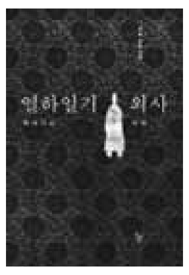
문예학자 발터 베냐민은 '문명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라고 했다. 문명의 역사 이면에는 광기와 비이성적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이들은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책을 읽다보면 뭔가 기시감이 든다. 우리 사회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종북', '꼴통' 딱지를 붙이는 행위들이 횡행한다.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마저 상실한 '일베'현상,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유서대필사건' 등도 집단적 비이성의 한 사례다.

〈양철북·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문체반정 둘러싼 연암과 벗들의 고뇌



열하일기 외사

설흔 지음

일반적으로 조선 정조는 임금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은 군왕으로 알려져 있다. 탕평책, 규장각 등 그가 단행한 개혁정책은 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이끈 대표적 치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조가 단행한 '문체반정(文體反正)-문체를 바른 곳으로 돌리다'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체반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인문소설로 형상화한 책이 발간됐다. 설흔 고전저술가가 펴낸 '열하일기 외사'는 문체반정이 일어난 18세기 조선 사회와 당대 권력을 파헤친다.

"요즈음 문풍(文風)이 이와 같은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박 아무개의 죄이다. '열하일기'는 내 이미 익히 보았으니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느냐? 이 자는 바로 법망을 빠져나간 인물이다."

위 글은 경연의 자리에서 정조가 남공철에게 한 말이다. 남공철은 연암 박지원의 친구이면서 정조가 아끼는 신하다. 정조는 남공철에게 위의 말을 편지로 적어 연암에게 보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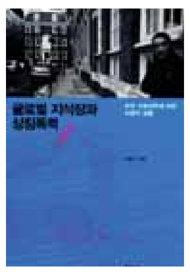
당시 박지원은 중국의 건륭제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열하지방을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썼다. 자유로운 문체로 쓰여진 이 책은 조선 사회에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러나 문체반정의 핵심은 남인에 대한 노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박지원을 볼모로 삼은 정치적 노림수였다는 게 중론이다.(정조의 보수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평은 제한적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문체반정 아래서 느꼈을 문장가 연암과 벗들의 고뇌에 초점을 맞춘다. 관직에 나가지 않고 문장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연암이 서슬 퍼런 정책 아래서 감당해야 했던 갈등의 지점이 실감나게 묘사돼 있다.

〈돌베개·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회과학 서구 종속성 극복하려면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김경만 지음

"한국 사회과학의 서구 종속성을 극복하려면 한국 사회에 부적합한 서구이론의 무분별한 차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구호가 아니라 서구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세계 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사회학자 김경만 서강대 교수의 논쟁적인 책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이 출간됐다. 과학지식사회학, 과학철학 전공자답게 그간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의 난해한 이론서를 주로 출간했던 저자가 이번 책에서는 학술문화와 지적 풍토 전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칼을 들이댄다.

"우리는 왜 세계적인 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적인 것, 토착적인 것의 추구"라고 답을 제시했던 대표적인 국내 학자 다섯명의 주장을 요모조모 뜯어 반박하는가 하면, 이들의 논의에 힘입어 한국 학계의 중심 담론으로 자리해온 '서구 종속성 재생산 논쟁'이 왜 허구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한다.

〈문학동네·2만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